

이야기 6 : 십자가

주제말씀
[누가복음 24: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겔세마데 동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께 힘이 되어 주었어요.

잠시 후,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칼을 든 군인들과 함께 왔어요.

유다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온 30년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을 잡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췄어요. 그러자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예수님은 잡혀 가서 대제사장에게 재판받을 받았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 갔어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 나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어떤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어요. 바라바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어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자 빌라도는 겁이 났어요.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렸어요. 병사들은 붉은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 가셨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서는 그만 돌부리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사들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고통을 참으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들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하였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마침내 숨을 거두셨어요. 바로 그 때, 예루살렘 성전에 걸쳐 있던 커다란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갈게 찢어졌어요.

골고다 언덕에서는 땅이 크게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어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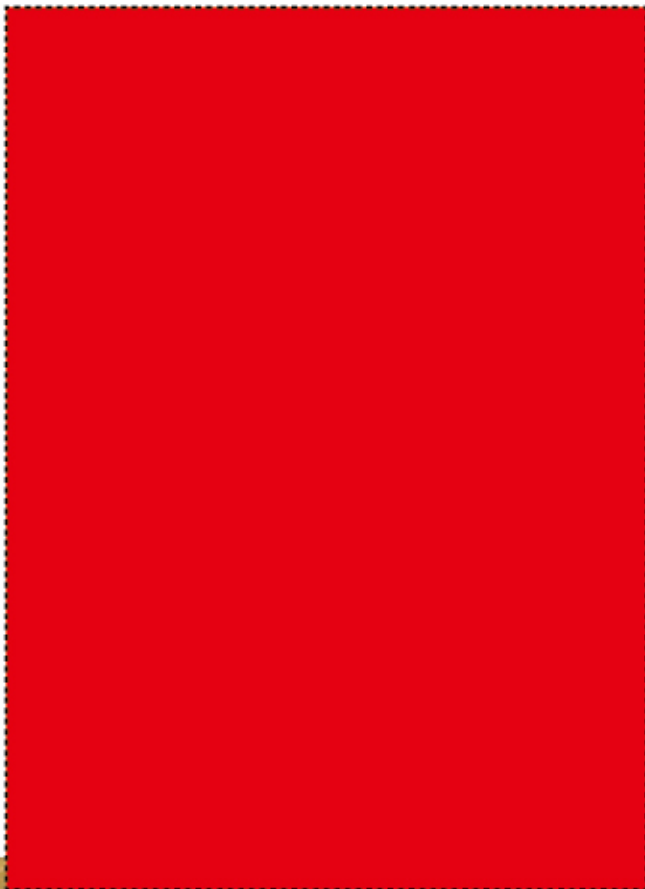


활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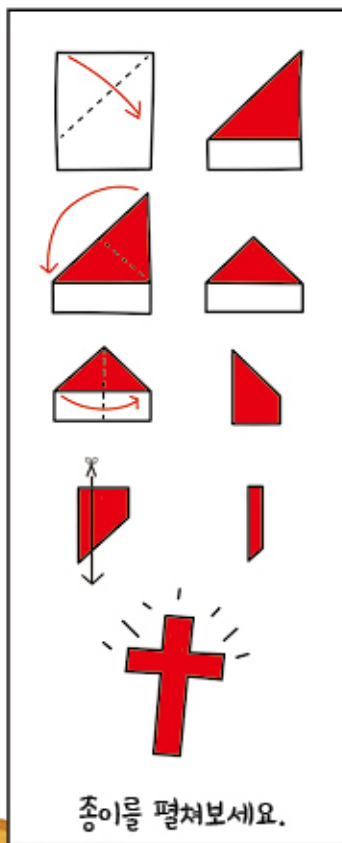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를 접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준비물 : 가위, 풀

① 아래 빨간색 종이를 오리세요.



② 아래 순서에 따라 십자가를 만드세요.



③ 아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을 잘라 ②에서 만든 십자가 위에 붙이세요.



완성된 이미지



활동 2.

초성 힌트로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ㅇ ㅅ ㄴ		

ㅂ ㄹ ㅂ		

ㄱ ㄱ ㄷ		

ㅅ ㅈ ㄱ		

ㄷ ㅇ ㄹ ㅇ ㄷ					

ㄱ ㅅ ㅁ ㄴ			

ㄱ ㄹ ㅇ ㄷ			

ㅂ ㅂ	

-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암송해 보세요. (누가복음 24:7)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